

제21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구 정 질 문

【북구 시설관리공단 수영강사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의 회

(강진희 의원)

북구 시설관리공단 수영강사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구 정 질 문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김정희 의장님, 이선경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박천동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보당 강진희 의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에 의하면,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여 북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함으로써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나옵니다.

최근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수영강사에 대한 부당한 계약해지와 수영강사뿐만 아니라 회원들과의 소통부재로 주민들의 불만이 극에 달한 상황입니다.

과연 지금의 복구시설관리공단이 구민생활의 편익과 복리증진을 위해서 운영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주민 위에 군림하는 시설관리공단이 아니라 주민들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으로 거듭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이사회는 이관우 이사장, 당연직 공무원으로 초금희 기획재정국장, 허사영 행정지원국장이 들어가고 있고 임명직으로 4명이 들어가고 당연직 감사로 김성철 기획예산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관우 이사장이 취임한 후 이사회가 총 9번 개최되었습니다. 「울산광역시 복구 시설관리공단 정관」 제4장 이사회 제26조(의결사항)에 의하면 이사회는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예산 및 결산, 정관 변경, 조직, 기구 및 정원, 규정의 제·개정, 폐지’ 등 공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11가지 사항에 대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총 9번의 이사회 중 3번이 강사 계약해지의 건으로 열렸습니다. 이사회에서 강사 계약해지 여부를 심의한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은 사기업과 달리 모범사용자 역할을 해야 합니다. 사람을 채용할 때도 투명하고 공정하게, 계약해지할 때도 신중 또 신중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월 31일자로 계약해지된 강사의 경우 민원이 들어왔다며 확인 공문을 보내어 제출하라고 하는 등 일반적이지 않은 계약해지 과정을 거쳤던데, 계약해지 사유와 절차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2023년 2월 9일 제28회 이사회 심의안건이 울산광역시 북구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 계약서 변경(안)입니다. 이사회에서 계약서 변경 심의를 하기 전 체육강사들에게 의견수렴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시설관리공단 이사장은 주민들을 대하는 자세, 노동조합에 대한 혐오발언 등 공공기관의 장으로서 자질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현 이사장은 박천동 구청장 후보시절 선대본부장을 하였고 인수위원장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보은인사라는 의구심을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청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5월 30일 오전 11시 30분경 회원들과 수영강사와 긴급 간담회가 개최되었습니다. 구청장님께서서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을 하였습니다. 수영강사의 부당한 계약해지와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특단의 조치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 6. 12.

강 진 희 의원